

##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독후 활동지



핫핑크돌핀스 글 | 박주애 그림  
두레아이들 | 116쪽 | 고학년 생태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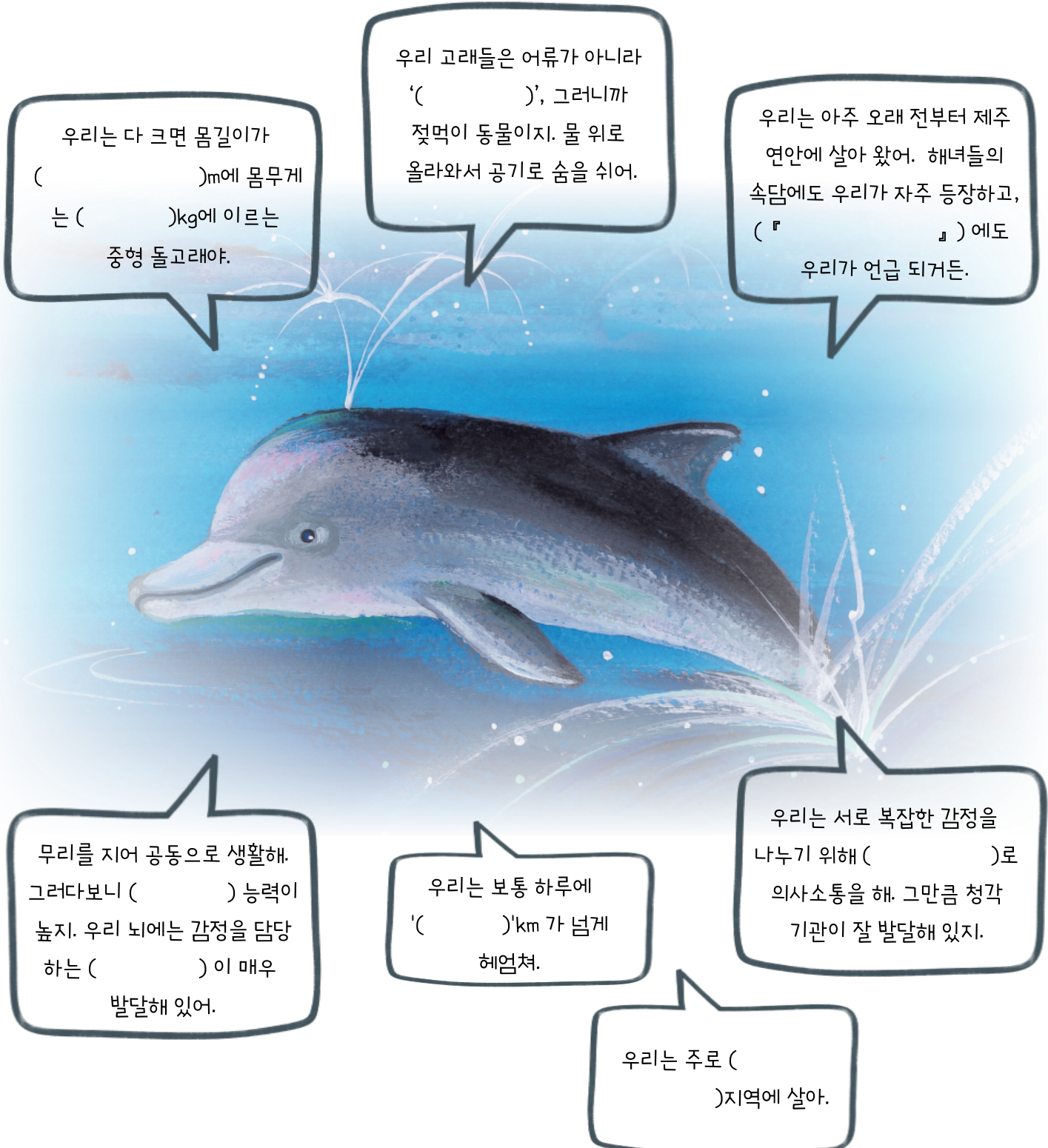
“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돌고래를 바다로 방류한  
세계 최초의 아름다운 사건!

”

# 활동1 제돌이의 자기 소개

돌고래는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동물입니다. 책을 통해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여러분을 위해 제돌이가 자기소개를 준비했어요. 책 속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돌이의 자기소개를 완성해 보세요.



우리는 다 크면 몸길이가 ( )m에 몸무게는 ( )kg에 이르는 중형 돌고래야.

우리 고래들은 어류가 아니라 '( )', 그러니까 젓먹이 동물이야. 물 위로 올라와서 공기로 숨을 쉬어.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제주 연안에 살아 왔어. 해녀들의 속담에도 우리가 자주 등장하고, (『 )에도 우리가 언급 되거든.

무리를 지어 공동으로 생활해. 그러다보니 ( )능력이 높지. 우리 뇌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 )이 매우 발달해 있어.

우리는 보통 하루에 '( )'km 가 넘게 헤엄쳐.

우리는 서로 복잡한 감정을 나누기 위해 ( )로 의사소통을 해. 그만큼 청각 기관이 잘 발달해 있지.

우리는 주로 ( )지역에 살아.

## 활동2 사라지는 돌고래 쇼

1. 여러분은 혹시 '돌고래 쇼'를 본 적 있나요? 또는 돌고래 쇼를 보고싶은 마음이 있나요?  
책에서 발췌한 아래의 글을 읽고, 수족관에서 돌고래 쇼를 하는 돌고래들의 마음은 어떨지  
짐작하여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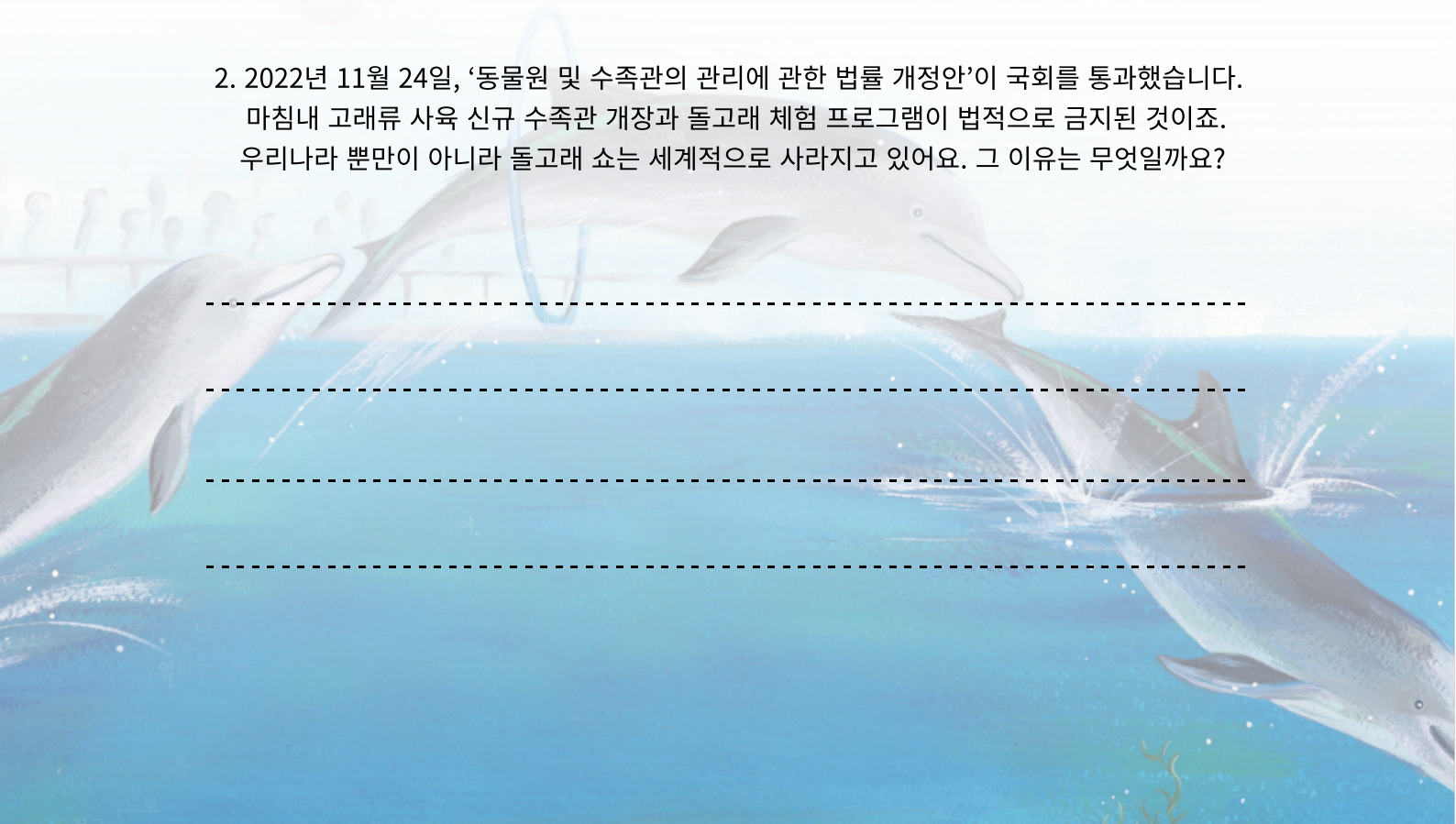
이곳에서는 날마다 시끄러운 음악과 관람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어.  
그때마다 고막이 터질 듯 울리고, 머리도 지끈지끈  
아팠어. 때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무척 괴로웠어.  
이런 소음 때문에 청각이 망가진 돌고래도  
많다고 해. 사람들은 이런 우리 사정은 아랑곳없이  
시끄럽게 웃고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지.

조련사가 부리를 밟고 물살 타기를 하는 바람에 부리  
끝 살갓도 다 벗겨져 쓰라렸고,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귀도 잘 안 들렸어. 이렇게 아픈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  
어. 묘기를 부리지 않을 때면 온종일 울기만 하는  
돌고래도 있었고, 한없이 제자리만 뱅글뱅글 도는  
돌고래도 있었어. 이런 우리들을 보고 나이 많은  
돌고래가 말했어.  
“우리 지금 모두 마음이 아픈 거야.”

-----  
-----  
-----

2. 2022년 11월 24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고래류 사육 신규 수족관 개장과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죠.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돌고래 쇼는 세계적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  
-----  
-----





# 활동3 바다로 돌아갈 준비

돌고래들은 제주도 앞바다에 방류되기 전에 먼저 재활 훈련을 받습니다.

새로운 환경인 제주도의 야생 바다에 잘 적응하고, 그곳에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였지요. 책 69~75p를 잘 읽어보고, 이 과정들이 왜 필요한지 생각하며 글로 써 봅시다.



-----

-----

-----



-----

-----

-----



-----

-----

-----



-----

-----

-----



-----

-----

-----

## 활동4

# 바다를 괴롭히는 쓰레기

제들이가 돌아간 바다는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이 버린 엄청난 양의 쓰레기 때문에 해마다 돌고래를 비롯한 해양 포유동물 10만여 마리와 조류 약 100만 마리가 죽는다고 합니다. 또한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무분별한 양식장, 해양 레저 시설, 지나친 연안 개발 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신문기사와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 "너무 괴로워요...제발 그만" 쓰레기에 신음하는 동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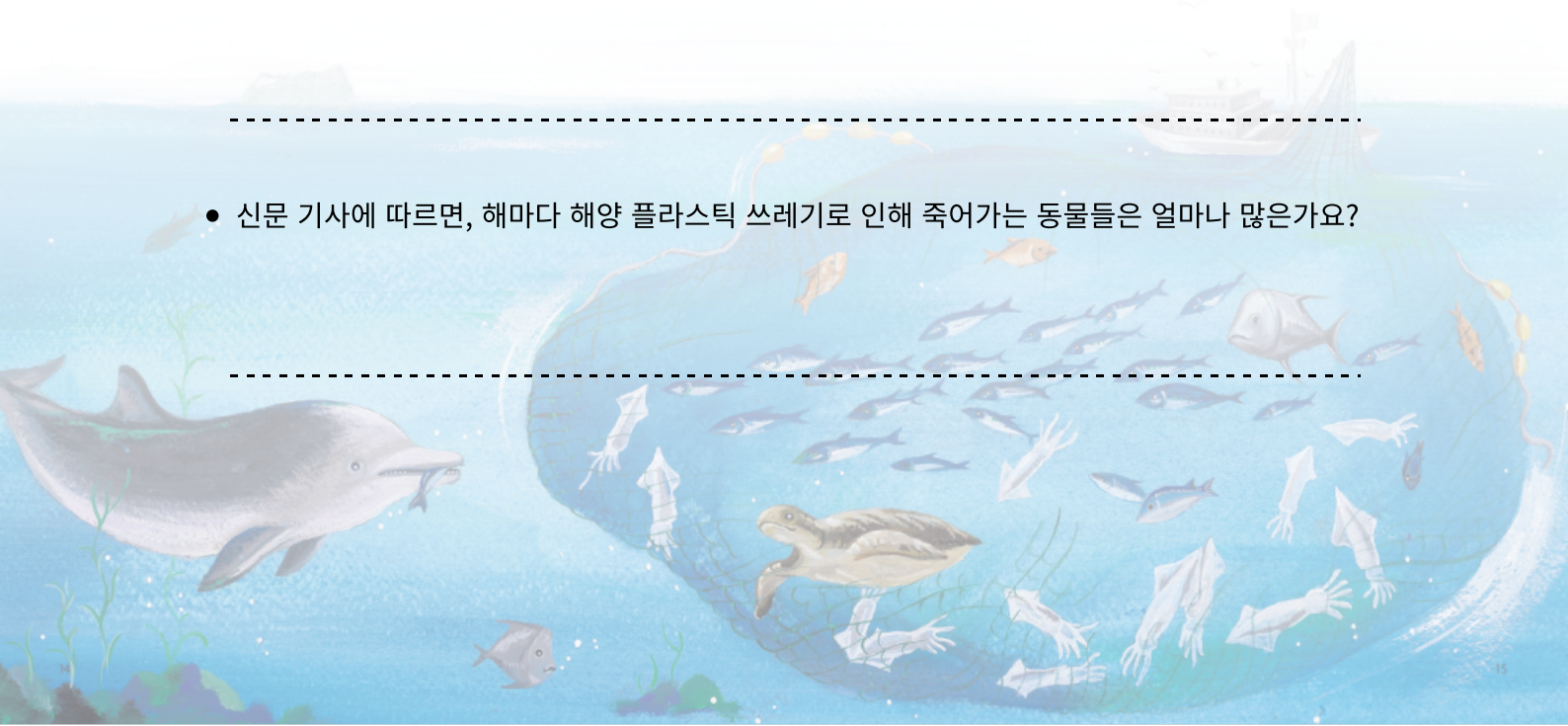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매년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양은 800만t 이상이며 그 중 버려진 어망만 약 64만t에 달한다. 게다가 이러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해마다 바닷새 100만 마리, 해양 포유동물 10만 마리가 죽어가고 있다. 동물들은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삼키거나 폐그물에 몸이 엉켜 심각한 외상을 입는다. 그들이 먹은 플라스틱은 소화되지 못한 채 몸속에 쌓이고, 그물망은 살갓을 파고들어 동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출처 : 뉴스펭귄(<https://www.newspenguin.com>)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엄마는 '아무것이나 마구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첫째도 그물, 둘째도 그물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입이 닳도록 하셨어. 사람들이 쳐 놓은 그물에 걸리거나, 사람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들을 먹이인 줄 알고 먹었다가 죽는 돌고래가 많아졌거든. \_9.p

- 신문 기사에 따르면, 매년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의 양은 얼마나 되나요?

- 신문 기사에 따르면, 해마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죽어가는 동물들은 얼마나 많은가요?



- 사람이 버리는 쓰레기는 단순히 바다와 지구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양 생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

- 바다 쓰레기로 인해 죽어가는 해양 생물들을 살리고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아래 적어 봅시다. 조그만 일들부터 일상에서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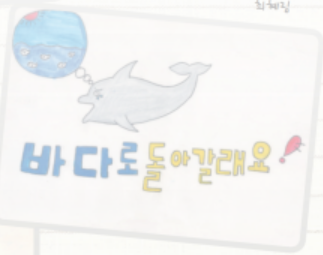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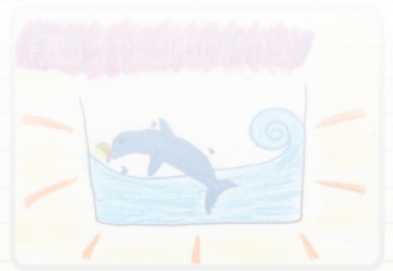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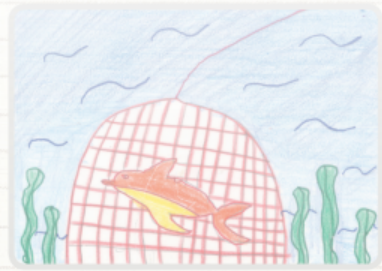
임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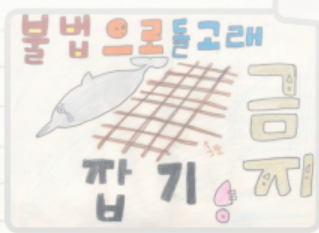
심혜진



백민혁



이세은



이승연



김종



김나비



## 활동5

# 제돌이에게 보내는 편지

제돌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다행히 자연 방류한 지 10년이 된 2023년 6월까지도 제돌이가 제주 바다에서 무리 지어 헤엄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며 제돌이와 돌고래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제돌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넓은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을 제돌이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

-----

-----

-----

-----

-----

-----

-----

-----

-----

\_\_\_\_ 학년 \_\_\_\_ 반 \_\_\_\_\_ 가

## 활동6 아직 남아있는 고래들

1. 제들이 바다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는 아직도 수족관에 갇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고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자 또는 환경단체 회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직 남아있는 고래들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 어디에 있는 고래인가?  
-----  
-----
- 고래의 이름은 무엇인가?  
-----  
-----
-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나?  
-----  
-----
- 그 밖에 알아낸 정보들  
-----  
-----

2. 손 팻말을 들고 거리에서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손 팻말'이란, '어떤 주장을 알리기 위하여 그 내용을 적어서 들고 다니는 널빤지'를 말합니다. 위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돌고래를 구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손 팻말을 들고 행동에 나선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래의 손 팻말에 어떤 문구를 써 넣고 싶은가요?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책 104~109.p 참고)

